

## [ 오피니언 ]

## 테마칼럼

도공비판

파리미망인

경제의 눈

광고판정



조 담

“

투자백서는 중간 책임자의 행동을 더 신중하게 하고 주민들의 판단이 더 현명해지도록 하는 학습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는 어떤 투자계획이든 투자자출보다 더 큰 미래 소득이 얻어지면 체택되는 것, 즉 순수한 경제적 판단에 의존하여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개인의 투자계획이나 주인이 명확한 사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 투자를 잘못하여 손해를 보면 그 손해는 곧바로 주인의 재산을 깨먹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체의 투자계획의 경우, 이런 생각은 현실과 한참 거리가 있는 순진한 생각이다. 실제로는 정부 또는 지방자체의 투자, 즉 공공투자는 흔히 매우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경제적 비용과 성과의 측정 역시 매우 애매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흔히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 또는 후보들은 여러 가지 대형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그 투자가 이루어지면 장밋빛 미래가 약속될 것처럼 설득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약점을 달성하려 한다. 여기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다. 그것은 공공투자의 비용은 정부기관의 장(여기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 또는 주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정치적 성과는 그 정부기관의 장에 귀속되고 손실은 고스란히 납세자들에게 전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기관의 장이나 후보자들은 화려한 투자계획을 제시하여 국민을 현혹하려는 정치적 유인을 갖는다.

그러면 이런 정치적 유인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없을까? 국민 또는 주민들이 더 똑똑해져서 공공투자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런 정치적 유인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론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큰 규모의 공공투자에 대해 실행 과정 및 실행후에 반드시 투자백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사후 적이고 소극적 방법이긴 하지만 그나마 실천 가능한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백서란 어떤 사업의 계획 및 진행상황, 예산 및 재원조달, 종합 및 부문 책임자 등을 정리하고, 계획과 실제 진행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차이에 수반되는 성과 또는 책임이 누구 탓인지, 그런 것들을 솔직하고 냉정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백서의 작성은 공공투자의 계획 및 실행 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공공투자의 집행과정 또는 집행 후에 백서가 냉정하게 작성된다면, 그래서 잘못된 계획이 사

건 더 신중하게 작성될 것이고 우리의 세금은 더욱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다. 설사 공공투자의 정치적 과실을 누군가가 따먹어버리고 난 후라도 하더라도, 투자백서는 중간 책임자의 행동을 더 신중하게 하고 주민들의 판단이 더 현명해지도록 하는 학습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지역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늦기 전에 각 사업별 투자백서가 작성되어 그 성과를 중간 또는 최종 평가받아야 한다.

광주지역에서는 광주 제2순환도로 시청 신축이전 사업, 도시철도 사업이 우선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전라남도에서는 무안국제공항, 도청이전 사업 등이 그 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고속철도 건설, 영종도 국제공항, 그리고 다른 큰 사업들도 투자백서 작성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왕 한번 결정한 것, 밀어 붙이자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의 진행상황이 계획된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그 공과 어떤 이유, 누구 책임인지 냉정하게 다시 한번 짜져 보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길이고 국민이 정치를 바른 길로 이끄는 방법이다.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최지윤



기 고

강동완



여름하면 생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단연 은빛 백사장과 푸른 파도가 출렁이는 해수욕장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휴가라도 며칠 내서 멀리 떠나려니, 시간도 없고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는 현대인들에게 실내 및 야외 수영장의 인기는 대단하다.

최근 5년 사이 수영장에 다녀온 뒤 갑작스런 두통과 함께 통증,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오는 일정·급성 축농증으로 아비인 후파를 병원에 오는 환자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영장 물속에 귓병·눈병·피부병·

을 호소하게 된다. 특히 수영장에 다녀온 뒤 감기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하면서 콧물 색이 누렇게 변하고, 목으로 불쾌한 냄새가 나는 노란 가래가 넘어간다면 부비동염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부비동염은 수영 후 발생하는 종이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축농증은 대부분 약물로서 치료가 가능하고 심한 경우 수술적으로 농을 배출하는 등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때는 간혹 유아에서 뇌막염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듯 물놀이 이후의 코질 환을 예

10여년 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미스사이공'을 관람한 적이 있다. 그 때 뮤지컬이 단순한 무대공연이 아닌 상상력과 첨단과학의 복합적 산물임도 알게 되었다.

뮤지컬은 갖가지 기발한 상상력을 보여주었다. 무대장식과 효과를 위해 최첨단 과학기술들이 동원됐다. 음악과 미술, 문학적 요소 등 다양한 장르가 융합했다.

더 나아가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평가할 줄 아는 소비자들의 참여가 이를 뒷받침했다. 인문학적 상상력을 끼에게로 하니의 작품 속에 과학과 공학, 사람과 문화가 함께 녹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원이 되면 편안하고 평생직장이 보장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장형이나 생계형 취업에 전적으로 기대는 것은 굉장히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다. "1+1=2"이라는 산술적 사고방식 때문에 학생들의 창의적 일자리를 찾고자하는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요즘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삶 속에서도 알미던지 본인의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의식이 내려져야 한다. 이것이 방안으로서 통합적인 시각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디자인(multidisciplinary) 학습이 필요하다. 대학시절 다양한 영

## 휴가철 물놀이 후 “급성축농증” 조심

설사병 등을 일으키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미생물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이다.

대부분 정상인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혈관운동성 비염이나 호산구성 비염 등 코의 점막이 과도하게 예민한 사람은 수영장의 소독약이나 이러한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해 부비동염이 올 수 있다.

콧속 구조가 덜 발달돼 있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의 경우는 코와 연결된 공기 주머니인 부비동에 세균이 침입해 쉽게 부비동염을 일으킨다.

부비동은 코 주변을 싸는 8개의 공간으로 콧물을 생산하고, 목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머리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부비동이 세균에 감염되면 끈적끈한 농이 쌓이게 되고 이럴 경우 호흡곤란과 산소 부족으로 인한 두통, 그리고 얼굴주위에 압박감과 이상감각

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첫 번째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질환을 가진 사람은 수영장의 염소 농도가 높을 경우 염소로 인한 비접막 자극을 막기 위해 수영을 금하거나 1시간 이내의 짧은 물놀이를 권하고 싶다.

두 번째로 수영 시 가능하면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수영 후에는 얼굴을 솔이 채로 한쪽 코 씩 가볍게 코를 풀어준다.

세 번째로 수영 후 미지근한 생리식 염수를 이용 코를 세척하여 준다. 마지막으로 수영 후 지속적으로 감기증상이 지속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게 좋다.

수영은 잠잠이 많은 운동이지만, 수영 전후에 개인 위생을 말끔히 하고 무엇보다 코에 기저 질환이 있거나 평소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증상을 가진 사람은 가급적 수영을 피하거나 장시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 벌 쏘임 사고 발생시 신속히 119나 주위에 알려야

8월이 시작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출동 중 하나가 벌집제거와 벌에 쏘이는 환자이송이다.

벌에 쏘였을 때 증상은 손상이 벌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 꽉차운 통증, 종창, 벌알, 가려움증, 두드러기, 입이나 혀의 부종, 기도부종에 의한 기도폐쇄, 흉부압박, 기침, 호흡곤란, 불안감, 복부통증 등 그 증상이 다양하며 사람에 따라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하는 위험한 증상이다.

벌에 쏘였거나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우선 119로 신고 및 주위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또 꿀벌의 침은 그것에 부착된 균조직과 함께 벌이 날아간 뒤에도 침이 병변에 계속 남아 약 20분정도 독소가 계속 주사될 수

있으므로 벌침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팬션이나 집계로 제거하면 갈고리 모양의 침에서 독소를 짜내는 결과를 가져와 환자에게 독을 더 주사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환자의 피부를 긁어주며 피부에 박힌 침을 제거해야 한다.

벌 쏘임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다. 이런 환자는 1시간 내외에 사망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두부나 신경계에 별에 의한 쏘임을 당해 마미, 호흡곤란 등의 긴급한 증상이 보이면 구급차가 오길 기다리지 말고 이송이 용이한 곳으로 환자를 옮겨 놓고 증상 변화추이를 구급대에 알려 주면 도착 즉시 적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박동주·보성소방서 119연선센터 소방교

## 보행자 위협하는 자전거 횡단보도 주행 안된다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밀리는 틈을 이용하여 요리조리 고개운전을 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을 볼 수 있다.

자전거는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로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은 채 고개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보고 있으면 불안할 뿐이다.

특히 횡단보도를 주행할 때 보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커짐과 동시에 양옆의 자동차 주행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빠른 속도로 달리어 차량과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광경 등을 볼 때면 아찔하다.

기능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의 요소로 다가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재준·인터넷 독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속도로 횡단보도를 달려 훨씬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지나갈때는 내린 후 보행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일반상식이 아닌가 싶다. 자전거는 도로상에서는 자동차에게 위협요소,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에게 위협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능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의 요소로 다가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재준·인터넷 독자

## [ 시설 ]

##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낙관할 상황 아니다

2012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한다. 모로코가 아프리카 및 이집트 등 2개 국가가 신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회원국의 대체별 분포도 우리에게 유리한 편이 아니다. 개최지 결정 투표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가 악수될 수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등이 전하는 모로코의 유치활동은 전방위적이다. 국왕이 직접 나서 '아프리카와 이슬람권 최초의 박람회'를 내세우며 '황제외교'를 펴고 있다. 오만, 카타르, 요르단 등 16개 왕국 국가의 지지를 유도했고 정치적·경제적 특수관계에 있는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의 일부 국가가 끌어들이고 있다.

지난국의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가입이란 평범도 쓰고 있다. 모로코는 경쟁 상대인 한국, 폴란드와 '지자국'을 가입시켜 표 확보를 금지하는 BIE 윤리규정을 지킨다'는 내용의 신사협정을 맺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 '서브프라임 사태' 파장 철저히 대비해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축발된 미국발 신용경색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 증시가 요동쳤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 따른 파장이 우리 경제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5.91포인트(6.93%)나 하락했다. 이는 종전의 사상 최대 낙폭 기록인 지난 2000년 4월 17일의 93.17포인트를 월씬 웃돈 것이다. 코스닥지수도 77.85포인트(10.15%) 내렸다.

이날 주식시장은 사이드 카 발동, 최대 낙폭, 하락률, 하락종목, 외국인 매도

최대치 등 좋지 않은 기록은 모두 쏟아냈다. '폐기'란 말을 실감하게 한 최악의 장이었다. 환율도 급등했다. 달러화 사재가 급증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80원이나 올랐다.

문제는 신용경색의 진양지자 할 수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글로벌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경기의 위축으로 우리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후폭풍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출과 내수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물경제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금융시장 혼란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대출기관이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경색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도 시장 분위기 너머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 無等鼓

대학가에서 한 때 '선풍기 교수'라는 말이 유행했다. 학생들이 제출한 시험 답안지를 선풍기 바람에 날려 가장 가까운 곳에 떨어진 것부터 A·B·C···순으로 좋은 점수를 준다는 것이다. 글씨로 빨빨이 채운 답안지 일수록 상대적으로 무거워 멀리 날아가지 못할 거라는 논리였을 게다.

현대, 이런 우스갯소리가 현실사회에 서 벌어지고 있다. 전 기술비를 제조하는 일본의 중소기업 '미라이'가 그렇다. 연극무대 감독 출신인 창업자 아키오 사장